

8개월 전 제가 로톡에 썼던 글

성폭력/강제추행 등

데이트성폭력 또는 상해죄 성립여부

이전 교제하던 사람과의 일어난 일 입니다.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에서는 크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저를 무릎 꿇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반 강제로 입으로 하게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성기가 제 몸에 강하게 들어오면 제 자궁경부가 너무 아팠고,

아프다고 그만하라며 말로 5번 이상 말했고 상대는 무력으로 계속 거세게 움직였고,

저는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배꼽, 명치, 가슴을 5~10차례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깔아 놓은 수건에 지름 5센치 이상의 피와 침대시트를 적실 정도로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를 더 더럽히고 싶지 않아 제 손목을 끌고 화장실로 가서 계속 했습니다.

말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힘으로 밀어도 밀리지 않고

상대의 성욕에 눈이 멀어 계속 하고 싶은 대로 성관계를 했고

그 눈빛에 저는 무서워서 화도, 폭력도 사용하지 못했고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직후에만 해당 일로 화를 냈고,
이 일에 대한 당시 카톡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교제가 끝나고

피해 입은 자궁경부의 상처가 일상생활하는데는 (소변 포함) 아무런 지장이 없고 통증이 없어서

진료를 받을 생각을 못했으며, 1달이 지나서야 산부인과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명 코드, 자궁경부염 및 미란, 자극에 의한 출혈양상, 치료기간이 적힌 일반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는 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달 내내 살이 8키로 넘게 빠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거나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한 일 외에

자궁경부에 지장이 갈 다른 활동은 없었습니다.

사건 1달 반 후

상대의 '너랑 그렇게 하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그래서 피가났으면 다음번엔 안하려고 노력해야지' '미안', 울면서 위의 정황적
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상해죄나 데이트 성폭력으로 송치 또는 기소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 글에 달린 심지연 변호사님 답변

요점 1.

아주 어려운 케이스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남인 경우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상황이어야 하고, 범행 직후에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단하고 신고를 해야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 폭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수준의 성관계가 아니고, 본인도 여러 번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확실히 폭행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후에 가해자에게 화를 낸 부분도 유리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계가 이어진 부분이 불리합니다.

만약 범행 때문에 서먹한 관계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이어진 것이면 괜찮지만, 다시 애정표현을 하거나 추가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동의했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폭력적인 상황은 맞지만 피해자가 확실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점 2.

정확한 승소 가능성은 그 이후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가 직접 봐야 말쑥드릴 수 있지만, 어려운 사건은 맞습니다.

다만 곧바로 화를 낸 부분은 분명히 좋은 정황증거고, 이후 관계가 빨리 끝난 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상해죄 부분은 피해자가 이런 폭력적인 성관계에 스스로 동의한 것이 맞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결국 강간죄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하든 아니면 둘 다 무혐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자세한 사건 전후 정황

2021. 6.26 하태원 피트니스 대회전날(박정은 오후에 창원으로 내려감)

2021. 6.27 하태원 피트니스 대회날(전날 수분조절하고 당일에도 성관계x)

2021. 6.28 초밥뷔페가서 밥 먹고 비행기 타러 부산으로 가야하는데 시간이 타이트한데 하태원이 성관계 시도, 하기 싫다고 하다가 머리 채 잡고 성관계 시켰을때 시간이 더 지체되기 싫어서 반항하지는 않음.

너무 흥분이 안되서 하태원 성기가 들어왔을때 너무 아팠음, 더 아파져서 하지말라고 아프다고 했는데 하태원이 안멈춰서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하면서 양손을 하태원 가슴, 명치, 복부를 5차례 이상 박정은이 가진 최대한의 힘으로 밀음,

박정은이 아래에 깔려있었고 위에있던 하태원몸은 꿈쩍도 안했고

하태원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음.

그러다 얼마 후에 하태원이 멈췄고 피 흘린 것 확인하고 수건 아래까지 흘린 것 확인하고 침대 시트 더 더럽히고 싶지는 않고 지 성욕은 더 풀어야해서 화장실에 데려가서 끝까지 했음.

박정은은 크게싸우다가 비행기 표를 놓칠까봐, 혹은 하태원이랑 싸우다가 부산공항에 데려다 주지 않을까봐 아무도 모르는 창원이라는 타지에서 당시 빨리 공항으로 출발해야하는데 하태원에게 의지해야했고 비굴해졌는지도 모름.

수건 먼저 치우고 침대 시트 빨래하는 하태원에게 화를 냈고

그러다 얼른 서둘러 하태원 차타고 부산공항으로 가면서 피가 난 이유를 검색하면서 그런 피를 본 적이 없어 갑자기 몸에 병이났는지 검색했다.

당시에는 하태원이 자궁경부를 강타하여 상처가 난 것 인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생리기간이 아닌데 내 몸에서 하혈한 것이 충격적이었고, 자궁암이 걸린 건 아닌가 걱정했다.

병걸린 것을 걱정하는 내모습에 하태원은 내 몸에 병이 있거든 자기가 다 감수하고 함께하겠다고 나름 든든하게 말했었다. 그리고 서둘러 부산공항에 나를 데려다주기 위해 열심히 뺏으며 운전하는 하태원이 든든하게 느껴졌었다.

그렇게 적당한 시간내에 부산공항에 도착했고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가게되어 하태원에게 고마움을 느꼈었다.

2021. 6.28 사건이 있던날이었지만 열심히 부산공항에 나를 데려다준 하태원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도 커서 그 전날이 몇개월간 하태원이 식단관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대회에서 결실을 거둔 날이어서, 하태원을 축하했었고, 장하게 여기고 있었고 하태원도 그동안 도와준 나에게 많이 고마워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싸운 내용이 없고, 평소처럼 하트와 사랑해라는 말도 오갔다.

그리고 하태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따로 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날 있었던 성관계를 혼자있을 때마다 계속 곱씹으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니 나중에 만나면 진지하게 하태원과의 성적문제에 대해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태원은 성관계와 관계없는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판단됐고, 만나는 동안에는 싸운 적이 없었다.)(하태원은 지능적이고 연기를 매우 잘하는 소시오패스)

그러던 중 2021.7.5일 밤~다음날 아침12시까지 하태원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밤새 단둘이 연락두절이 되었고, 하태원이 미안하다고 한 대화내용이 있었고, 1차 헤어질 위기가 왔고 서로 이때 정이 조금 떨어졌었을 것이다.

그 후로 하태원은 대회준비기간동안 못먹던것 못놀던것 못만난 사람들을 신나게 만나고 다녔고 박정은과 하태원은 7월 넷째주에 만나기로 했었던 것 같음.

그러다 2021.7.22. 하태원이 정체불명의 친구와 술?밥? 불명을 먹고 오후 10시 45분에 집에 와서 씻는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받고 또 밤새 연락두절되었고 갑자기 연락두절되서 119신고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잠도 못잤는데 알고보니 다음날 내가 의심을 하는 것으로 혼자 소설을 쓰고 JR을 해서 바로 헤어졌다.

그 후 그동안 하태원을 만나면서 맘고생했던 준강간, 비동의질내사정, 강간사건, 고의 연락두절사건이 모두 종합하여 너무나도 큰 정신병을 일으켰고, 나는 너무 힘든데 하태원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계속 신나게 놀고다니는 모습에 더 정신병이 걸렸고 사과를 제대로 받지않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서

2021. 7월 29일 카카오톡으로 해당 이야기들을 모두 써서 장문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리고 하태원도 장문의 카카오톡을 써서 답장을 보냈는데, 나에게 성적인 상처가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미안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하태원을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2021. 8월 2일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려는 길에 하태원에게 고소했다고 카톡을 했다.

그리고 경찰서쪽 지하철역사안에서 하태원이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영상통화로 전환하기도 했고,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된 걸 아는 눈치를 보이며 제대로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서울에 오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2021.6.28 사건 이후로 하태원을 만난 적이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고소한 후에 사과하러 남남으로 만난 것

그리고 2021.8.7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하태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녹취록으로 있다.

하태원은 고소당한 준강간에 대해서는 사실을 숨기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주변이나 변호사 상담후 사과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온것임)

그리고 질내사정 한 것도 고의로 한걸 부정했고, 강간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공항안내소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짤린 느낌)

그 이후의 일들

그 후 연락한 적이 없고, 형사조사에서는 하태원이 거짓진술하였고 나를 모함해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았고, 검찰 항고도 불기소되었다.

형사를 포기하고 당시 변호사의 방법론으로 형사와 동시에 민사를 걸었던지라 건김에 민사소송으로 싸우는데 1심을 패소했고, 증거가 더 있는데 변호사가 제출하지 못해 패소한 것 같아 불만이어서 항소를 했다.

그런 나의 태도에 위기감을 느낀건지 나에게 보복을 하기위해 안달이 난 상태인건지, 하태원 변호사가 돈에 눈이 멀어 하태원을 설득하여 수임할만한 것들을 모두 하자고 했는지 하태원은 2023.1.27에 나를 무고죄로 허위고소하고, 카탈죄로도 거짓내용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내가 민사소송 항소를 공격적으로 하니, 위기감을 느낀건지 하태원은 반소로 카탈죄를 거짓으로 똑같이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 하태원과 하태원의 변호사를 보니 이 싸움은 무조건 끝을 봐야 끝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거짓말을 지어 나를 양심을 품은 여자로 모함하고 거짓사실로 고소한 하태원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준강간을 고소했을때 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 아저씨가 너무 괴로운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남자를 앞으로는 만나지 말라고도 하고 조사받으면서 아주 울게 했었다.

그리고 얻는 결과는 불기소여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서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다시 고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고 민사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게 정서적으로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민사를 열심히 진행한건데 이제 항소심까지 패소하고 나서 알아보니 형사에서 불기소 된 사건은 민사에서 가능성이 너무 낮았다는 것. 판결문을 읽어보니 상고해도 절대 이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몇개월간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도 끝났고 이제 막 민사소송도 안된다는 판결도 받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하태원을 응징할 고소를 하려고 한다.

고소할 죄명 : 강간, 강간치상, 상해

동의하에 성행위가 시작된 경우에도 도중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연히 중단해야하며 계속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거부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적 성관계 부분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 좋을수도, 안좋을 수도 있는 사실 >

민사소송하며 거의 모든 내 증거를 상대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동안 조사받으며 말한 내용,

민사에서 고소할 강간건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

+준강간 형사사건에서
하태원이 나에대해 거짓 모함한 내용,
혐의 부정한 내용이 있다.

하태원이 2021.1.27. 나를 무고죄, 카탈죄로 역고소한 것은
내가 공항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물랐을 때 저지른 것.

< 관련 판례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 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 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 변호사님께 질문 : 위 판례 출처가 나무위키인데, 사실확인을 하고자
대법원 판례검색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검색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없는 것인지, 지운것인지, 검색에 뜨는 판례와 안뜨는 판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정리

< 민사소송(2심패소) >

1. 2021.3.27 준강간
2. 2021.4.18 비동의 질내사정
3. 2021.6.28 강제적인 성관계
4. 2021 카탈죄 2건
5. 2023.1.27 피고가 원고에게 무고죄, 카탈죄 무고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죄

1번 항목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다

2,3,4 끼워서 소송하다가 패소,

증거 더내며 항소했지만 형사적으로 불기소영향인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패소

피고가 카탈명목으로 반소하여 항소이후 소송비용은 각자부담

< 형사 >

1. 2021.3.27 준강간 (검찰항고 불기소 처분)
2. 2021.6.28 강간, 강간치상, 상해 (고소예정)
3. 2023.1.27 피고의 무고죄_준강간, 카탈죄

< 변호사님께 절차에 대한 상담 여쭙볼 것 >

- 민사에서 원고는 상고 시간을 벌어두고 형사에서 재판을 받아와서 3번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만 상고할 수도 있는지?
- 1,2심에서 민사 3번 항목 강간으로 인해서는 1천만원 배상을 주장했다(형사 고소도 안했었기때문에), 지금 3번 항목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만약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3심이 그 이후에 재판될 수 있는지
- 지금 민사 패소로 물어두면 새로 민사소송제기가 아닌, 재심으로만 진행되는게 맞는지, 1천만원 주장한 부분을 5천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서 청구할 수 있는지
- 일단 1심 소송비용분(440만) 물어주고 재심으로 다시 판결받는 방법이 나은지, 아니면 상고시간 끝다가 3심으로 재판받는게 나은지